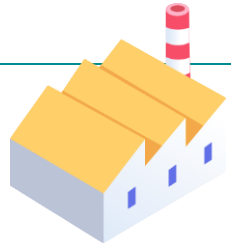


# 유연탄과 미국산 LNG 원가 우위 국면



유틸리티 Weekly | 2026.03.13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8% 상회했다. 11일 증가 기준 WTI는 86.8달러/배럴(WoW +16.4%), 미국 천연가스는 3.2달러/mmbtu(+10.2%), 아시아 LNG 현물은 16.0달러/mmbtu(+5.8%), 호주산 유연탄은 133.1달러/톤(+1.1%), 원/달러 환율은 1,477.9원(+1.1%)을 기록했다. 중동 분쟁 이후 두바이와 브렌트의 가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휴전이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3월 31일까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이다. 하지만 상황은 조기 종료와는 거리가 먼 국면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휴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1~2주의 기간이 중요한 상황이다.
- 한국 입장에서 LNG 수급 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석탄이다. 원자력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예방정비일정에 의해 일정 기간 가동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 만약 1개 분기 가량 정비 일정 순연이 가능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용률 제고 관점에서 기여도가 크지 않다. 한편 유연탄의 경우 연간 이용률이 5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여력이 존재한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연탄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유연탄 비중을 높이려면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정지 상태에서 정상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낮은 부하로 가동하더라도 LNG의 유연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ESS가 계통 자원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면 LNG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여력은 제한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결국 LNG 가격이 오르면 전력시장의 원가가 오르게 되고 만약 석탄이 가스를 대체한다면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비례해서 감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SMP는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것이다.
- 노후 석탄 폐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복합화력 정비 물량이 한전KPS와 민간정비업체 중 어느 곳이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업체의 석탄 설비 정비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규 복합화력 정비 시장이 공기업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 민간업체의 점진적인 외형 감소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 이번 달 안에 정부 해상풍력 입찰이 재개될 전망이다. 육상풍력의 경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공공주도형과 일반 해상풍력 입찰로 구분되며 일반 입찰 시장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도 시행된다. 과거 발전사업자의 경우 입찰 참여 시 사용 공급망을 사업내역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입찰부터는 기재된 기자재와 '동급 이상' 기자재로 변경이 허용되어 발전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어 프로젝트 단가 하락에 기여가 가능하다. 외국산 공급망을 사용해도 국내 생산 요건, 적정 가격을 갖출 경우 지난 입찰과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입찰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반기 재도전이 가능해진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12일 증가 기준 15,150원으로 전주대비 9.8% 상승, YTD 45.7%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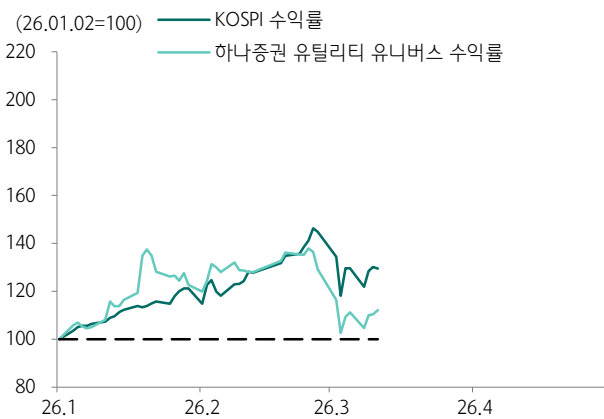
### 종목 코멘트

- SK가스(Top Pick): 최근 원자재 가격 실적에 우호적. LPG와 아시아 LNG 현물 격차 작아 읍셔널리티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
- SGC에너지(Top Pick): 유가 대비 유연탄 가격은 덜 오르는 국면. 현재 상황 지속 시 3분기부터 발전 부문 마진 개선 가능
- 지역난방공사: 유가 대비 미국 가스 가격은 제한적 변동. 3분기 개별요금제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지만 최대 비수기
- 한국전력: 환율, 유가, 유연탄 가격 모두 우상향 흐름. 현재 지표 수준 유지 시 3분기 SMP 160원/kWh 수준으로 상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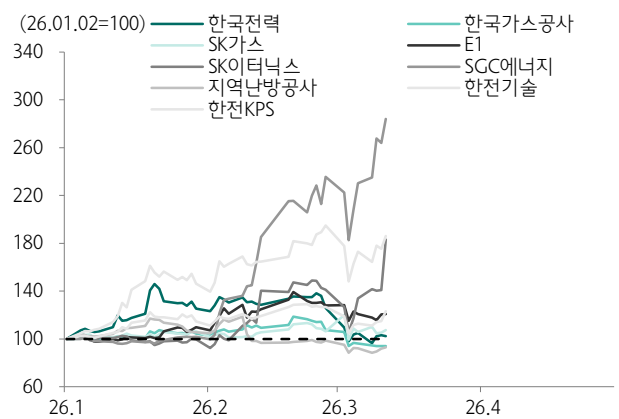
##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3/12)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Pt)	5,583.25	(0.0)	(11.5)	(1.7)	1.1	(26,782)	(44,879)	70,532
한국전력	47,600	(1.2)	(24.8)	(23.3)	(20.8)	(1,318)	(825)	2,126
한국가스공사	36,100	(2.7)	(17.8)	(15.8)	(15.4)	(109)	(349)	457
SK가스	235,000	(1.3)	(1.1)	(0.6)	2.8	26	(11)	(13)
E1	97,500	(1.8)	(7.8)	(9.2)	(1.5)	8	15	(24)
SK이티닉스	37,350	55.9	28.4	31.5	61.3	159	(100)	(61)
SGC에너지	60,800	36.5	33.5	32.0	74.0	19	(10)	12
지역난방공사	88,000	0.8	(3.9)	(3.9)	(5.5)	(25)	(15)	33
한전기술	167,000	14.2	(1.8)	10.2	13.1	89	(279)	181
한전KPS	60,300	10.4	(2.7)	(2.7)	4.3	10	(22)	12

##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주요 뉴스

### # 1. LNG 수급 차질 대비 석탄·원자력 발전 활용 방안 검토 - <https://shorturl.at/a1y7N>

- 정부가 LNG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
- 기후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을 보이거나 전력시장 반영까지 시차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 발표
- 먼저 현재 15기가 가동 중인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고 LNG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 석탄발전을 유연하게 운전

### # 2. LNG 용량시장, 12차 전기본 이후로 지연?...업계, “탈석탄 정책 악영향” 지적 - <https://shorturl.at/zFCRb>

- 11차 전기본상 LNG 용량시장 잔여물량 1.3GW가 잔존하지만 12차 전기본 이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
- 여기에 NDC 달성 이후 LNG 열병합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역할 등의 정부 방침도 미비하다는 지적
- 원활한 장기적 투자 판단을 위해 중장기적 목표 제시와 제도 개편도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

### # 3. ‘깜깜이’ 전력망 정보...해상풍력 보급 걸림돌 - <https://shorturl.at/nX0Dy>

- 해상풍력법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
- 한국환경연구원은 해저케이블과 전력망 구축이 발전 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발전 제약의 가능성을 제기
- 송전망 협력 구조, 정부 주도 환경평가, 주민 참여 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갈등과 계통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

**# 4. 한전KPS도 민간社도 못 물러선다...신규 복합화력 '분수령' - <https://shorturl.at/kJ3Vz>**

- 한전KPS의 직접고용 결정 이후 발전정비 물량 배분이 초미의 관심사. 신규 복합화력 정비 일감 행보에 관심이 집중
- 민간 정비사 역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 일감이 한전KPS에 집중될 경우 정비사의 고용 유지와 사업 기반에 타격을 입기 때문
- 발전정비 시장은 한전KPS와 8개 민간 정비사가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 2024년 기준 민간 정비사의 점유율은 56%를 기록

**# 5. 풍력입찰 '공급망 족쇄' 풀었다...발전사업자 선택권 확대 - <https://shorturl.at/X60AI>**

- 올 상반기 실시 예정인 정부 풍력 입찰의 계획과 일정이 공개. 그동안 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
- 올해 입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주도형과 일반 입찰 시장으로 구분돼 시행. 2년만에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또한 실시
- 기존 2단계로 나뉘져 있는 방식도 일부 개선. 1차 평가의 용량 제한을 없애 많은 사업자가 2차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실시

**# 6. 두산에너지빌리티, 美 기업과 가스터빈 7기 공급계약 - <https://shorturl.at/t6hDY>**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의 모 기업이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380MW급 가스터빈 7기의 공급계약을 체결
- 미국에서 가스터빈 수주 확대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검증된 성능, 빠른 납기, 미국 현지 자회사의 서비스 지원이 주 요인
- 지난 2019년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 이후 1만 7,000시간 실증을 완료하여 지금까지 총 23기 공급 이력을 보유

**# 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LNG 유통사업 첫 진출 - <https://shorturl.at/lA11t>**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대표 LNG 생산 기업과 LNG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LNG 유통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
- 2030년부터 20년간 연 150만톤의 LNG를 확보하고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실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
- 이번 계약은 그룹 계열사 역량을 결집한 글로벌 LNG 밸류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의미

**# 8. 이란 전쟁, 에너지 시장 흔들...재생에너지 필요성 재조명 - <https://shorturl.at/YVCpb>**

- 이란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더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기대
- 러-우 사태도 이러한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아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 9. 중국, '석탄 핵심' 둔 보수적 기후 로드맵 발표 - <https://shorturl.at/G4D4u>**

-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향후 45년간의 기후 대응 청사진을 발표 했으나 석탄 회귀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달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배출량 증가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
- 석탄은 성장 엔진으로 재 부상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선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의 긍정적 전망도 존재

**# 10.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SPA 급증... 유럽·아시아 수요 영향 - <https://shorturl.at/FVb8C>**

- 미국 LNG 개발사들이 2025년 연간 4,000만톤 규모의 LNG SPA를 체결. 2022년 이후 가장 큰 규모
- 유럽과 아시아의 LNG 수요 확대와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심사 재개 영향이 수출 확대를 견인한 주 요인
- 구매 측면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 유틸리티 기업, 국영기업 등이 포함

##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3월 11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477.9	1,462.3	1,463.6	1,469.0	1,451.8	1,440.6	1.1	1.0	0.6	1.8	2.6
달러 인덱스	Pt	99.5	98.8	97.7	98.6	103.5	98.3	0.7	1.8	0.9	(3.9)	1.2
WTI	달러/배럴	86.8	74.6	63.8	58.7	66.5	57.3	16.4	36.1	47.9	30.5	51.6
Brent	달러/배럴	92.3	81.5	68.1	62.3	69.8	60.9	13.3	35.6	48.2	32.3	51.7
Dubai	달러/배럴	121.8	81.4	67.6	62.4	71.2	60.9	49.6	80.4	95.4	71.1	100.1
Bunker	달러/톤	732.1	576.6	424.9	331.3	463.9	341.8	27.0	72.3	121.0	57.8	114.2
천연가스(HH)	달러/MMBtu	3.2	2.9	3.4	4.6	4.5	3.7	10.2	(5.0)	(30.2)	(27.4)	(12.5)
아시아 LNG	달러/MMBtu	16.0	15.1	11.1	10.8	13.7	9.6	5.8	44.0	48.4	16.7	66.5
유연탄(호주)	달러/톤	133.1	131.7	115.6	109.4	104.9	107.5	1.1	15.1	21.7	26.9	23.8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 판매실적 추이

### 한국전력

		2025년 12월	2024년 12월	YoY(%)	2025년 11월	MoM(%)	2025년 YTD	2024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6,753	6,633	1.8	6,480	4.2	88,474	86,989	1.7
	일반용	11,390	11,133	2.3	9,973	14.2	138,315	134,807	2.6
	산업용	23,302	23,720	(1.8)	22,225	4.8	280,221	286,212	(2.1)
	기타	3,906	3,932	(0.7)	3,398	15.0	42,407	41,812	1.4
	합계	45,351	45,417	(0.1)	42,076	7.8	549,417	549,821	(0.1)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10,481	10,083	3.9	9,856	6.3	140,642	136,499	3.0
	일반용	20,693	20,217	2.4	17,484	18.4	238,855	233,207	2.4
	산업용	44,527	45,158	(1.4)	42,209	5.5	509,712	481,330	5.9
	기타	4,416	4,324	2.1	3,675	20.2	46,825	44,758	4.6
	합계	80,117	79,781	0.4	73,223	9.4	936,035	895,794	4.5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55.2	152.0	2.1	152.1	2.0	159.0	156.9	1.3
	일반용	181.7	181.6	0.0	175.3	3.6	172.7	173.0	(0.2)
	산업용	191.1	190.4	0.4	189.9	0.6	181.9	168.2	8.2
	기타	113.1	110.0	2.8	108.1	4.5	110.4	107.0	3.2
	평균	176.7	175.7	0.6	174.0	1.5	170.4	162.9	4.6

### 한국가스공사

		2026년 1월	2025년 1월	YoY(%)	2025년 12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3,074	2,801	9.7	2,569	19.7	3,074	2,801	9.7
	발전	1,854	1,504	23.3	1,306	42.0	1,854	1,504	23.3
	합계	4,928	4,305	14.5	3,875	27.2	4,928	4,305	14.5

### 지역난방공사

		2026년 1월	2025년 1월	YoY(%)	2025년 12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천Gcal, GWh)	열	3,166	2,846	11.2	2,477	27.8	3,166	2,846	11.2
	냉수	12	13	(7.7)	13	(7.7)	12	13	(7.7)
	전기	1,810	1,865	(2.9)	1,566	15.6	1,810	1,865	(2.9)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3월 5일(목)	3월 6일(금)	3월 7일(토)	3월 8일(일)	3월 9일(월)	3월 10일(화)	3월 11일(수)
SMP(원/kWh)	최대	120.73	130.82	121.51	132.95	120.69	122.02	129.57
	최소	103.27	101.71	97.14	97.14	100.82	101.54	105.54
	가중평균	112.30	112.58	111.53	112.44	112.06	112.27	116.75
수요예측(MW)	최대	68,905	72,583	62,889	62,507	70,127	71,024	71,267
	최소	55,376	54,654	43,056	40,123	51,283	53,439	55,181
	가중평균	62,782	64,197	55,649	52,898	61,838	61,804	63,434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전일수요예측 (GW)	실제-예측 (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3월 5일 19시(목)	158.1	91.5	73.2	75.2	(2.6)	68.9	4.3	18.3	25.0
3월 6일 10시(금)	158.1	91.2	77.3	74.3	4.1	72.6	4.7	13.9	18.0
3월 7일 20시(토)	158.1	83.8	64.8	63.8	1.5	62.9	1.9	19.1	29.4
3월 8일 20시(일)	158.1	81.9	63.3	62.4	1.5	62.5	0.8	18.5	29.3
3월 9일 10시(월)	158.1	85.8	76.3	72.3	5.5	70.1	6.1	9.6	12.5
3월 10일 9시(화)	158.1	85.7	73.9	71.5	3.3	71.0	2.9	11.8	16.0
3월 11일 9시(수)	158.2	85.7	73.6	71.9	2.3	71.3	2.3	12.1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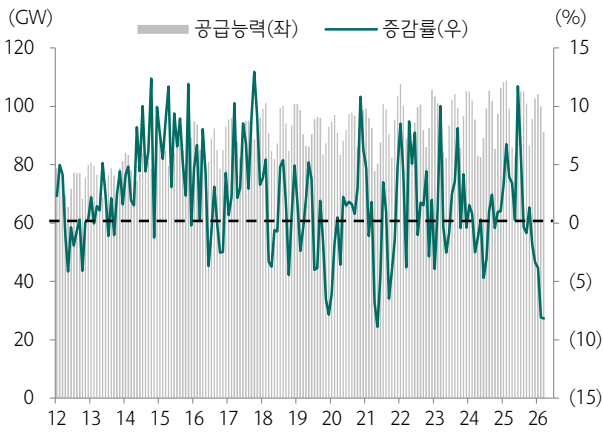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3월 2주차)		
석탄	당진	#2: 2.28 - 3.7 / #8: 3.7 - 3.9 / #8: 3.9 - 3.14 / #9: 2.13 - 5.20 / #10: 3.4 - 3.9
	보령	#3: 3.3 - 3.13 / #4: 2.24 - 3.17 / #5: 3.14 - 3.16 / #6: 3.7 - 3.9 / #6: 3.14 - 3.16 / #7: 3.15 - 3.21 / #7: 3.7 - 3.9
	신보령	#2: 2.19 - 6.15
	삼천포	#3: 3.7 - 3.9 / #3: 3.14 - 3.16 / #4: 2.23 - 3.31 / #5: 2.18 - 4.15
	여수	#1: 2.23 - 4.7
	영흥	#1: 1.1 - 10.1 / #2: 1.1 - 10.1 / #5: 2.5 - 3.17
	태안	#2: 3.3 - 3.28 / #4: 3.7 - 3.9 / #4: 3.14 - 4.1 / #5: 3.7 - 3.9 / #5: 3.14 - 3.16 / #7: 3.3 - 5.14 / #9: 3.3 - 6.10
	신서천	
	하동	#1: 3.7 - 3.9 / #1: 3.14 - 3.16 / #2: 3.7 - 3.9 / #2: 3.14 - 3.16 / #3: 3.7 - 3.9 / #3: 3.14 - 3.16 / #5: 3.7 - 3.13 / #5: 3.14 - 3.16 / #6: 1.26 - 4.23 / #7: 3.7 - 3.9 / #7: 3.14 - 3.16
	삼척그린	#1: 3.2 - 3.7 / #1: 3.14 - 3.16 / #1: 3.7 - 3.9
	북평	
	고성	#2: 2.23 - 4.25
	강릉안인	#2: 2.15 - 4.11
	삼척화력	#1: 2.3 - 5.4
국내탄	동해	#1: 2.23 - 6.2 / #2: 2.23 - 5.22
	고리	#2: '23.4.8 - '26.3.25 / #3: '24.9.28 - '26.7.12 / #4: '25.8.6 - '26.7.12
원자력	신고리	
	한빛	#1: '25.12.9 - '27.3.31 / #4: '25.10.25 - '26.3.2 / #6: 2.7 - 4.10
	한울	#3: 2.13 - 5.18 / #5: 2.26 - 6.26
	신한울	
	월성	#2: '25.9.1 - '26.4.20 / #3: '25.9.26 - '26.4.21 / #4: '25.7.18 - '26.4.30
	신월성	#1: 1.5 - 3.20
	새울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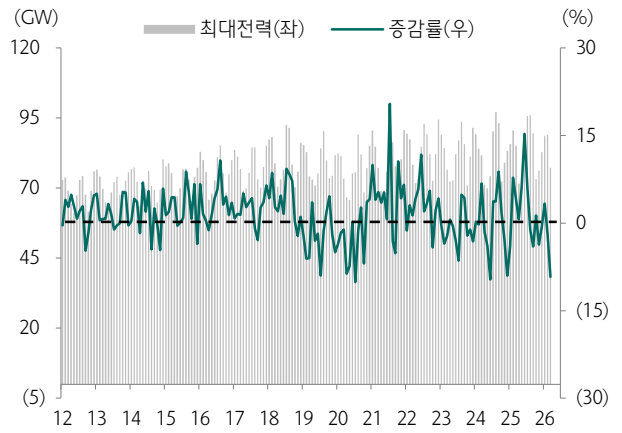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3월 6일 최대수요 기준 YoY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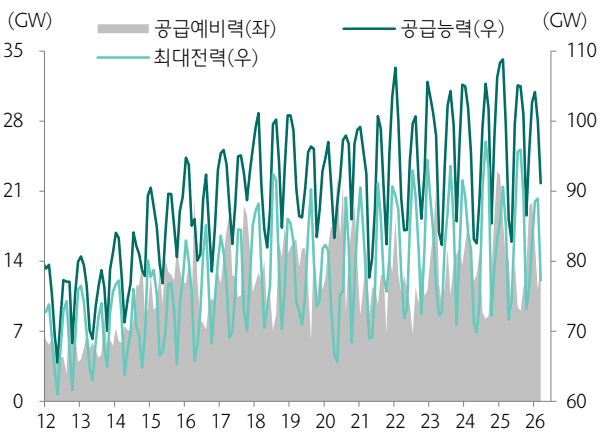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3월 6일 최대수요 기준 YoY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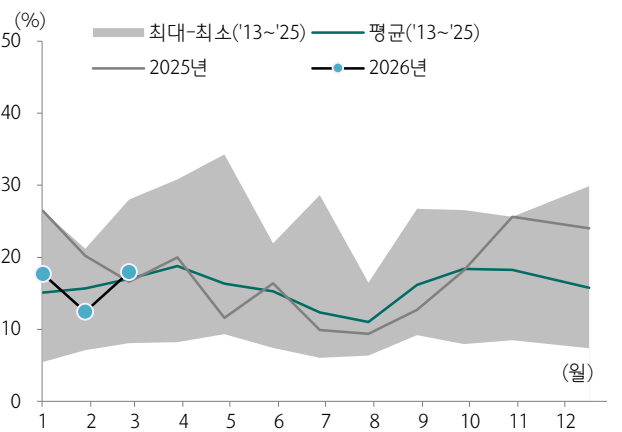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3월 6일 최대수요 기준 YoY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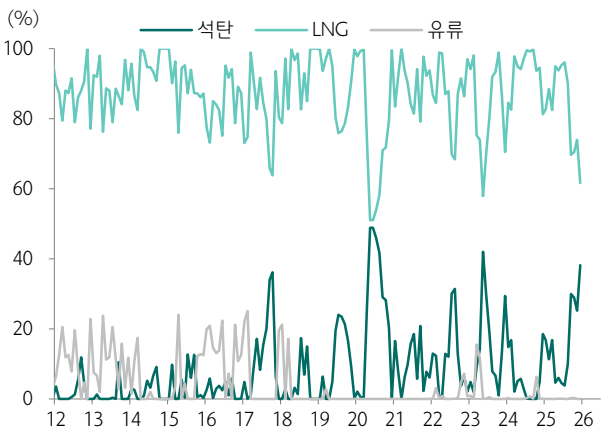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3월 6일 최대수요 기준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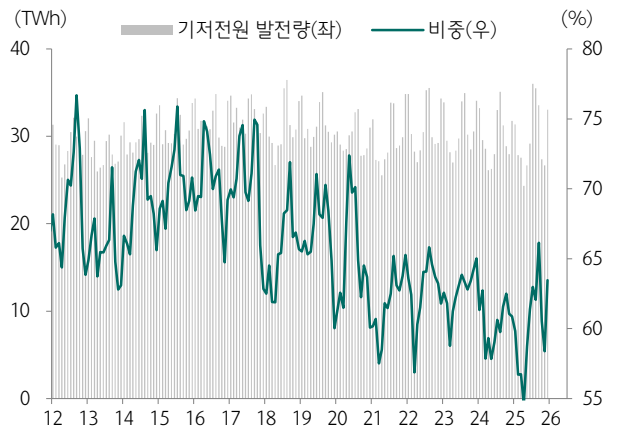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12월 기저전원비중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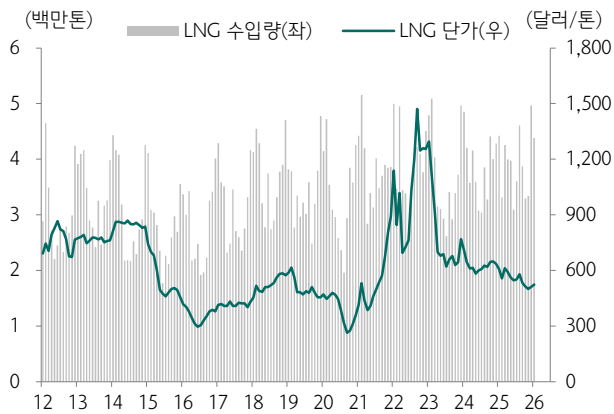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12월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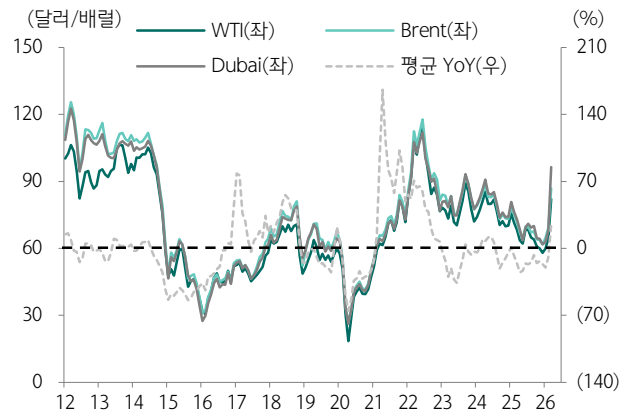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1월 YoY -1.0%/-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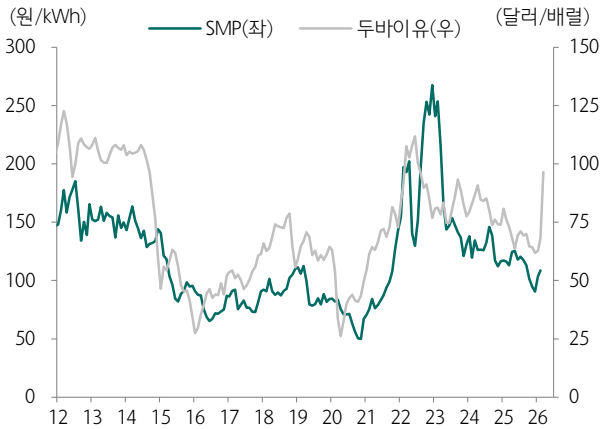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3월 3대 유종 평균 YoY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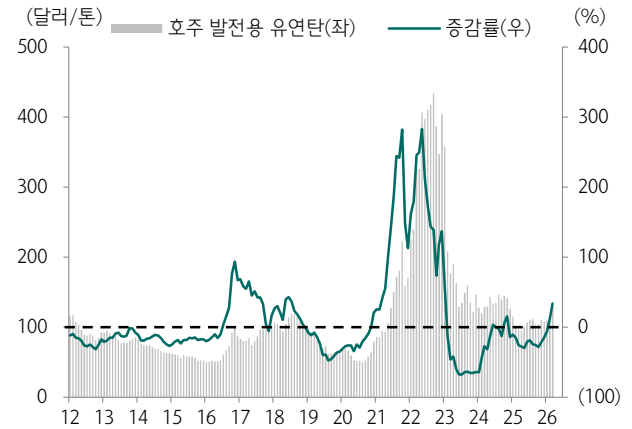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2월 SMP YoY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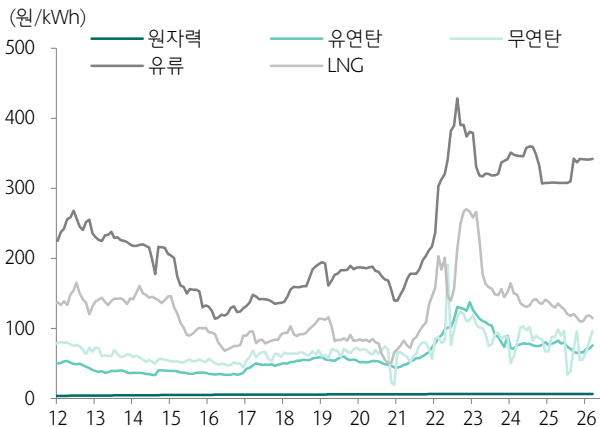
자료: EPS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3월 YoY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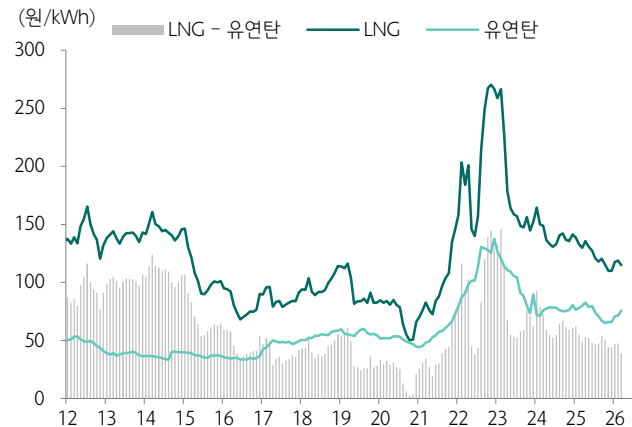
자료: EPSS,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3월 LNG YoY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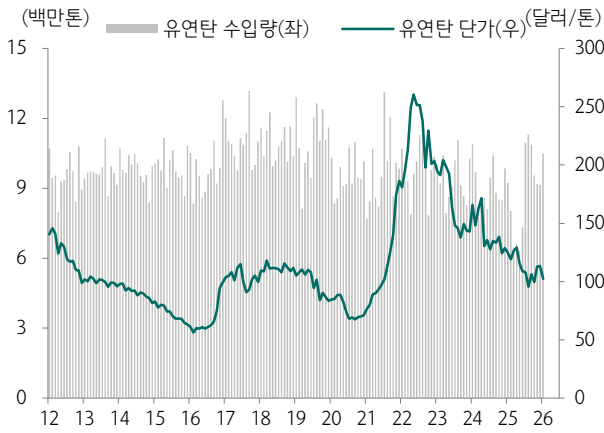
자료: EPSS, 하나증권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3월 39.06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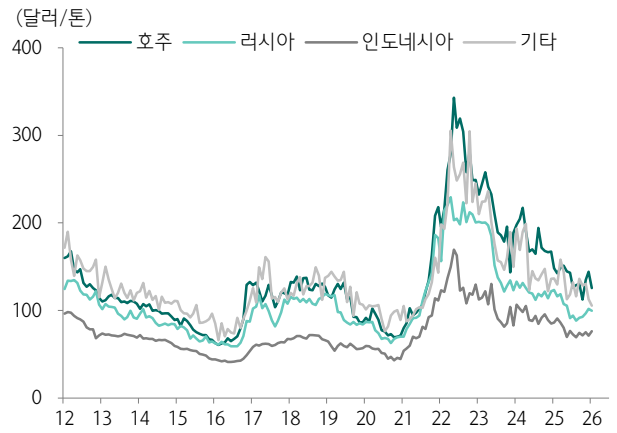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도표 1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1월 YoY +13.7%/-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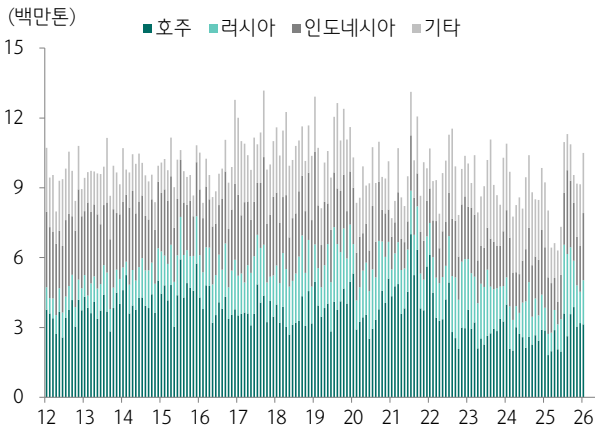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4. 지역별 유연탄 수입단가 (1월 호주 YoY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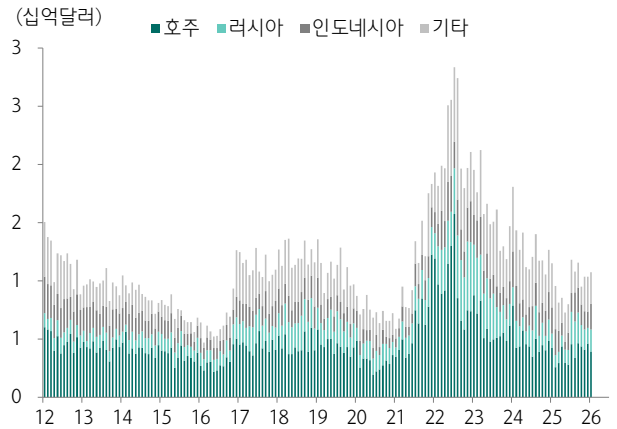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5. 지역별 유연탄 수입물량 (1월 호주 YoY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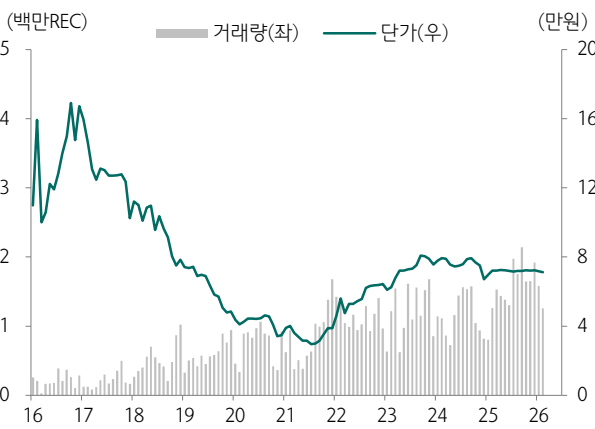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6. 지역별 유연탄 수입금액 (1월 호주 YoY -7.7%)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7. 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2월 YoY -0.3%/-1.2%)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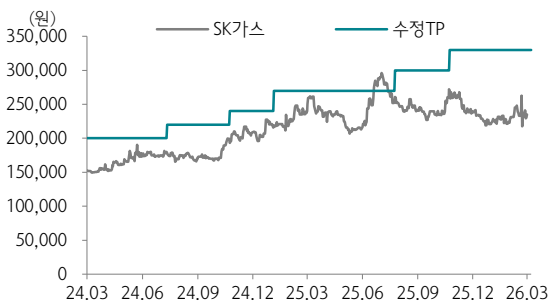
도표 18.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추이 (KAU25)



자료: KOMIS,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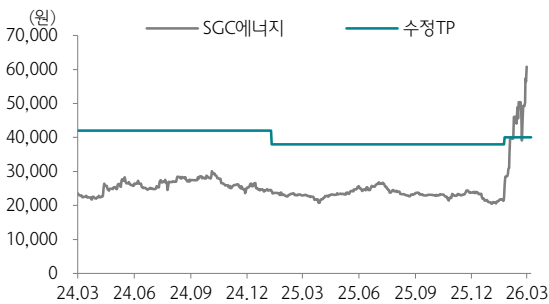
SK가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4	BUY	330,000		
25.8.5	BUY	300,000	-19.03%	-9.33%
25.1.16	BUY	270,000	-10.81%	9.63%
24.11.4	BUY	240,000	-13.07%	-5.21%
24.7.23	BUY	220,000	-20.44%	-9.23%
23.10.30	BUY	200,000	-20.57%	-4.7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SGC에너지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4	BUY	40,000		
25.1.21	BUY	38,000	-38.41%	-29.61%
24.2.1	BUY	42,000	-39.03%	-28.3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3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 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 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 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 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 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7%	3.23%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10일